**니부나 미즈사와 삼나무 희소개체군 보호림 - 기미마치 삼나무**

이 18헥타르의 보호림에는 약 3,000그루의 삼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삼나무의 평균 수령은 250년이고, 삼나무 중에는 높이가 50m 넘는 삼나무도 있습니다.

삼나무는 빨리 자라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중요한 목재 공급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재건과 그 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고도 경제 성장기에 목재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수십억 그루의 삼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부분 삼나무는 비교적 최근에 식림된 것입니다. 그러나 니부나 미즈사와 삼나무 희소개체군 보호림은 천연 삼나무 숲의 대표적인 예이며, 이곳은 1947년에 보호림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숲에는 아키타현에서 가장 높은 삼나무인 ‘기미마치 삼나무’가 있습니다. 수령 250년 된 이 거목은 높이가 58m이고 둘레가 5m가 넘으며, 이 나무 한 그루로 182m²의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수천만 엔이나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주위에 있는 무수한 나무들은 니부나 미즈사와 삼나무 희소개체군 보호림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원목(原木) 입니다. 1962년 높이 56m의 ‘고이부미 삼나무’가 지역 벌목산업에 의해 우수한 어미 나무로 꼽혔습니다. 곧은줄기와 곤충에 강한 ‘고이부미 삼나무’의 증식을 기대한 삼림업자들은 이 나무의 종자를 채집했고, 상업용 목재로 벌목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심었습니다.

800m의 순환 코스는 니부나 미즈사와 삼나무 희소개체군 보호림의 웅장한 나무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비가 오면 나무길은 미끄러지기 쉬우며, 일부 판자가 부서져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숲에 서식하는 곰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곰 방울을 휴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